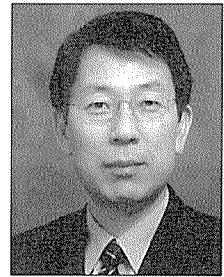


“도서관인이여! 일어나자”



정 동 열*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대주제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개발과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 분야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심장부로서 역동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며,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도서관인이다.

모든 도서관인의 벽찬 희망과 꿈의 축제로 개최될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인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5,000여명의 도서관 및 정보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감상하는 문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도서관인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가슴 벅찬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내년 서울대회를 위하여 그간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1998년 이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 바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서관을 국가 발전의 심장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핵심 지식기반이 될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05년 봄의 다짐.

그간의 침체된 경제상황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먹고 마시는 향락문화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투기와 난개발이 붓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등 말초적이고 비도덕적인 우리의 문화구조를 타타하기에 앞서,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식정보국가를 지향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도서관 문제의 해결이다. 도서관 문제는 비단 도서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체제로의 방향 전환과 지식정보사회

* 우리 협회 국제협력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dyjeong@ewha.ac.kr

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본전제가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의 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자리 찾기는 시설 확충과 장서 및 예산증가와 더불어 국가의 뚜렷한 의지가 필연적이다. 열악한 시설과 장서를 과감히 개선하여 선진국에 필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동시에 내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서관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와 의식혁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도서관인이 주지하고 있듯이, 서울대회를 위한 국가조직위원회(NOC)가 구성되어 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 경과를 보면, 서울대회 로고 확정, 매년 IFLA 대회 대표단 파견, 미국·일본·중국 도서관대회 홍보단 파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05년도는 내년 준비를 위한 마지막 해로서 외국 참가자를 위한 방문도서관 선정, 관광 및 문화탐방 개발, 문화행사 프로그램 결정, 오슬로 대회에서 배포할 홍보물 제작, 각국의 도서관대회 파견 및 홍보활동, 각종 안내문 발송,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세부적인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위상과 지위 향상은 물론 도서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인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이 협력하고 참여하자.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이 서울대회의 주최자이며 진행자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와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가족행사에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도서관인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을 만들자. 2002년 월드컵 당시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든 '아, 필승! 코리아'를 2006년의 '아, 문화! 코리아' 혹은 '도서관! 코리아'로 전국을 뒤흔게 하자. 서울대회를 통하여 도서관인은 물론 범국가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문화창달과 국력신장의 역동적 엔진임을 보여주자.

2005년과 2006년 - 지금부터 시작이다.

2004년까지가 서울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구축단계였다면, 2005년부터는 사업을 확장하고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이다. 도서관이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명심하여 모든 정책입안과 도서관 지원에 각고의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지식과 정보전쟁으로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도서관이 국가의 정보보고나 역동적 엔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21세기 선진 지식국가 건설은 헛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찬란한 반만년 문화유산은 퇴색되어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도서관이 그 고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 새로운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번성이 있을 수 없으며, 참다운 민주정치가 싹틀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육중한 역사의 수레 바퀴는 참다운 지식이 올바르게 형성된 국가에서 똑바로 굴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새삼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도서관인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도서관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자. 도서관인이여! 일어나자. 